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 돌파예상

지난 9월 한달간 처리물량 10만TEU에 달해

올들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인천항을 거쳐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0만TEU 안팎으로 잠정 집계돼, 1883년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컨테이너 물동량도 80만2,000TEU를 기록, 인천항의 숙원인 연 컨테이너 100만TEU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항이 과거 목재,고철 등의 원료수입항에서 이제 수도권,의 국 제 물류기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량 증가는 우선 중국 경제의 호황에 크게 힘입고 있다. 현재 인천항에서는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9개의 카페리 항로 외에도 8개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한-중간에 개설돼 있다. 8월에는 홍콩계 선사인 골드스타라인이 인천-칭다오(靑島)-텐진(天津)-상하이(上海)-홍콩 간의 정기 항로를 열어 가세했다.

인천-웨이하이(威海)간의 컨테이너 선사인 한성라인은 주2회씩 운항하던 것을 이달 중순부터 3회씩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55%가 한-중 항로를 통해 드나들고 있다.

동남아 항로에도 연초에 고려해운과 중국계의 Sim's라인이 인천-동남아간 항로를 새로 개설했다.

항만운영 주체가 정부에서 공사로 바뀐 것도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초 하역·도선·검수 등 인천항 관련 업체들과 함께 ‘컨테이너 120만개 목표’ 선포식을 열고,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박회사들에게 실적에 따라 각종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수출입 업체들이 과거에는 컨테이너 1개당 40만~50만원의 육상 수송비를 들여 부산항으로 내려갔지만 인천항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인센티브제 등을 시행하면서 선적항을 점차 인천항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